대만 불광산사서 올여름 500명 단기출가

1988년 시작 올해로 105기
18~65세 신도들 수행정진
오전 5시 반부터 저녁 10시
강경 · 예불 · 운력 일과 참여

박영빈 객원기자



수계를 받는 단기출가 참가자들. 사진출처=불광산총림학원 페이스북

대만불교의 중심점 중 한 곳인 불광산사(佛光山寺)에서 봉행된 단기출가 수도회가 원만히 성료됐다. 지난 7월 29일 대만 불광산사는 500여 명의 신도들이 무사히 단기출가를 마치고 원만히 환계를 마쳤다고 전했다.

대만 불광산사 단기출가수도회는 1988년 처음 시작됐다. 중국불교계에서는 최초의 단기출가 제도를 세운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번 단기출가수도회는 7월 6일부터 27일까지 청년부와 신도부로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6일부터 12일까지는 18~35세 사이의 미혼 남녀가 104기, 21일부터 27일까지는 18~65세 사이의 불광산사 신도들이 105기 단기출가로 계를 수지하고 대중스님들과 함께 수행정진했다.

불광산총림학원은 단기출가수도회의 목적을 "전통불교의 의제를 실천하고, 재가신자들이 출가승단의 생활을 체험함으로써 몸을 가다듬고 덕성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불광산사 단기출가수도회에 참가하길 원할 경우 자기소개서를 비롯한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하고 2차 면접에 통과하고서야 단기출가를 할 수 있다.

지난 21일 3사 7증의 정식 계단으로 열린 단기출가 수계식에서 전계대화상을 맡은 불광산사 주지 신바오 스님은 500명의 참가자들에게 "출가라는 것은 먼지와 때로 오염된 집에서 벗어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번뇌의 집, 생사의 집, 삼계의 집에서 벗어남을 말한다. 그렇기에 출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자유자재하게 하는 것"이라고 법문했다.

참가자들은 수계식에서 단기출가 동안 사용할 가사와 발우, 좌구를 지급 받았으며 계를 받고선 조사당을 참배하여 새로운 출가자들이 탄생했음을 고했다. 한 참가자는 "비록 단기출가이지만 정식계단으로 계를 받아 기쁘다. 계가 이 세상에 머물러 있기에 승가가 있고, 승가가 있기에 정법이 머무르는 것"이라며 단기출가를 하게 된 기쁨을 전했다.

단기출가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불광산사의 대중스님들이 수행정진하는 것과 동일한 생활을 체험하고 익혔다. 오전 5시 반부터 저녁 10시까지 참가자들은 강경, 예불, 운력 등의 빼곡한 일과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했다. 한 여성 참가자는 "재가불교 신자로서 마음으로는 출가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이렇게 단기출가를 통해 스님들의 삶을 직접 체험하고팠다. 더욱 삼보를 공경하고 외호하겠다는 마음이 생긴다"며 환희심을 표현했다.

일주일간의 단기출가가 끝나고 27일 봉행된 환계식에서 참가자들은 사용했던 가사와 발우, 좌구를 반납하고 여법하게 계를 반납하는 의식을 진행했다. 불광산사 부주지 후이자오 스님은 참가자들에게 "모두 지난 며칠동안 부처님 앞에서 세운 서원을 잊지 말고, 돌아가서도 불도를 향한 마음을 견고히 하길 바란다. 단기출가에서 배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회향하라"고 격려했다.

불광산사 단기출가회는 대만 불광산사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불광산사 등에서도 개최되며, 참가 기수간의 모임이나 신행단체도 결성되는 등 교계에서도 많은 반향을 이끌어 내고 있다.

中, 불교고전 영어 번역 '활발'

중국불교협회 · 영어교류기지
"정치적이다" 비판 여론도


불교영어 교육과정에 참가한 참석자들. 사진출처=비터 윈터

중국불교계에서 새로운 역경사업이 활발하다. 중국불교계를 대표하는 중국불교협회와 불교영어교류기지(佛教英语交流基地)는 현재 광둥성 주하이시의 푸퉈쓰(普陀寺)에서 다양한 중국 불교고전을 영어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경사업이 순수하게 종교적인 의도가 아닌 정치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비판도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8월 2일 인권전문 뉴스매체인 '비터 윈터'는 지난 7월 초에 개최된 불교영어교류기지의 '2024 불교영어 교육과정'을 집중보도하며 소개했다.

불교영어교류기지는 2017년부터 푸퉈쓰가 진행해온 프로젝트로 중국 정부와 지역당국, 중국불교협회의 승인을 받아 세워졌다. 이 기지는 중국 불교문화를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더 많은 중국 불교고전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을 목표로 세워졌다. 지난 7월 3일부터 3일간 진행된 영어교육과정에는 중국불교협회의 임원들 외에도 중국내 종교를 통제, 감독하는 통일전선공작부의 직원들도 이 과정에 참석했다. 이러한 참석인원과 중국불교협회 부회장이자 불교영어교류기지의 이사인 밍셩(明生) 스님의 개회사가 현재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밍셩 스님은 "중국불교의 홍보와 고전의 번역은 우리 기지의 유일한 이유가 아니며 이는 프로젝트의 일부"라고 밝히며 "중국 불교도들은 일대일로 사업의 진행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 시진핑 주석이 거듭 주장했듯이 모든 중국인들은 일대일로에 포함된 국가에 '중국에서 기술한' 역사와 문화 사상을 전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터 윈터'와 해외 인권단체 등은 "중국이 불교를 이용한 소프트 파워로 불교를 세계종교가 아닌 '중국종교'로 만들려 한다. 또한 이러한 영어교육을 받는 출가자와 학생들은 종교적 신심보다 정치적 의식을 기준으로 선정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박영빈 객원기자

印 환경단체, 불교유적지 보호 요청

해양불교 교두보인 톳라콘다
휴양지 개발 열풍 우려 반발


보호를 요청한 톳라콘다 불교유적 전경. 사진출처=힌두스탄타임즈

인도의 한 환경단체가 안드라프라데시 주 불교유적지의 보호를 요청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7월 31일 인도 매체 '힌두스탄 타임즈'는 환경단체의 톳라콘다 불교 유적지 보호 요청 소식을 전했다.

중인도 동쪽 해안에 위치한 톳라콘다 불교유적지는 기원전 3세기에 조성된 상좌부 불교 사찰로 고고학적 가치가 높다. 특히 스리랑카와 동남아시아 지역에 해양불교 전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칼링가(Kalinga) 왕국이 지배한 곳이다. 1960년 역사적 기념물 및 고고학적 유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기념물로 지정됐다.

그러나 최근 톳라콘다 휴양지 개발 열풍이 불며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에 환경단체는 정부에 톳라콘다 불교 유적의 보호와 복원을 촉구했다.

전 정부 관료이자 환경 운동가 E.A.S. 사르마에 따르면 톳라콘다 불교 유적지는 인도 해군기지 부지 항공 조사 중 우연히 발견됐다. 1978년 주 정부는 톳라콘다의 총 3143에이커(약 4백만 평)의 땅을 불교 유적지로 설정하고 인도 고고학 조사국(ASI)이 발굴에 참여했다. 당시 적은 예산이 책정되어 5년에 걸쳐 120에이커(14만여 평)만 조사했다. 제한된 조사에도 불구하고 탑, 기둥 4개, 벽 33개, 동굴 231개 등이 발견되었으며 2000년 전 번성했던 상좌부 불교 유적임이 확인됐다. 또한 유적지 남쪽에는 수원 역할을 했던 물탱크 9개, 저수지 2개 등이 발견됐다. 사르마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휴양지 개발 열풍을 막지 못한다면 톳라콘다 전역에서 잠재된 고고학적 증거를 의식적으로 지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환경학자 소한 하탕가디는 "최초 발굴 조사가 이뤄진 곳과는 별개로 고대 불교 유적이 톳라콘다 전역에 퍼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 톳라콘다 지역 전체를 보호하고 조사해야한다. 2000여 년 전 불교 번성의 증거를 보호해야한다"며 강력하게 톳라콘다 불교유적지 보호를 촉구했다.

전 인도 고고학 조사국 첸나 레디는 "톳라콘다 주변에서 환경이 좋은 해안지대에 집단휴양시설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면서 "인도 고고학 조사국은 인력난에 직면해 톳라콘다 불교 유적지의 발굴 및 보호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사르마는 "지하에 숨겨진 유적을 발굴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어야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상 침투 레이더(GPR)등 비침습적이고 비파괴적인 지구 물리학 기술을 활용한 조사도 있다. 유사한 기법으로 보드가야의 유적을 발굴했다"고 지적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캐나다 텐트 붕괴…단기출가 체험 중 참변

뇌우 동반 폭풍우 41명 사상
400여 명 공양 중 긴급 대피


31일 캐나다 웨스트록 명상센터에서 발생한 텐트 붕괴 사고 현장에 접근 금지 테이프가 붙어있다. 사진출처=CBC

캐나다 불교 명상센터에서 주최한 단기출가 체험 중 뇌우를 동반한 폭풍우에 1명이 숨지는 등 4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8월 1일 캐나다 국영방송 'CBC 비씨'는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에 위치한 웨스트록 불교 명상센터에서 주최한 단기출가 체험에서 발생한 폭풍우 참사를 보도했다. 뇌우를 동반한 폭풍우로 텐트가 무너져 1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RCMP)은 "7월 31일 오후 5시 30분(현지 시간) 혹독한 폭풍으로 텐트 구조물이 수련회 인파를 덮쳤다. 4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이미 70대 외국인 여성 1명이 사망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웨스트록 명상센터의 마이클 응우옌 대변인은 "2002년부터 진행한 단기출가 프로그램에 올해 호주·독일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약 400명의 성인남녀가 발심출가 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하자 실내로 긴급 대피하는 도중 텐트의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출가자들을 덮쳤다"고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소 9대의 구급차가 출동해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대부분은 안정을 찾은 상태"라고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마음여행 해외성지순례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중국 실크로드 코스는 서안에서 돈황석굴을 지나서 투루판과 우루무치까지 현장법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입니다.
출발일정 : 10월 21일~10월 30일(9박10일)
동참금 | 349만원
일 정 | 인천-서안(진시황 병마용갱,화청지)-법문사(부처님 불지사리)-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장액(대불사)-칠채산(일곱빛깔 무지개산)-가욕관(만리장성의 서쪽 최전방 성루)-돈황(막고굴,명사산)-유원-투루판(베제크릭천불동, 화염산, 고창고성, 교하고성)-우루무치(천산천지)-인천

인도,네팔 성지순례
실크로드의 인도성지순례는 깊이 있는 참다운 순례입니다.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동참금 | 290만원~310만원
▶1차 9월 26일 출발~10월 5일 도착 (10일 일정)
▶2차 10월 20일 출발~10월 29일 도착 (10일 일정)
▶3차 11월 17일 출발~11월 26일 도착 (10일 일정)
▶4차 12월 5일 출발~12월 15일 도착 (11일 일정)
▶5차 1월 4일 출발~ 1월 14일 도착 (11일 일정)
▶6차 1월 9일 출발~ 1월 19일 도착 (11일 일정)

부탄,네팔 성지순례 8일
출발일정 : 9월 21일~28일(6박8일)
10월 13일~20일(6박8일)
히말라야의 불교왕국 부탄,
아름다운 부탄과 네팔 카트만두 불교성지 순례입니다.
특히 카트만두에서 부탄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8,000m가 넘는 히말라야 14좌 중에서 에베레스트를
비롯해서 5개의 봉우리를 볼 수 있는 최상의 코스입니다.
일 정 | 인천-카트만두-부탄 파로-팀푸-푸나카-파로-카트만두-인천
동참금 | 399만원

중국 실크로드 돈황석굴 6일
중국 서안관광과 맥적산석굴, 병령사석굴, 돈황석굴등
실크로드 코스에서 중요한 3대 석굴을 순례하는 일정입니다.
출발일정 : 10월 13일~18일(5박6일)
일 정 | 인천-서안(진시황 병마용갱,양귀비화청지)-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돈황(막고굴,명사산)-서안-인천
동참금 | 259만원

일본 교토 사찰 단풍여행 4일
단풍으로 아름다운 교토의 명사찰 순례
11월 19일 출발~22일 도착
일 정 | 인천-오사카-법륭사-선림사-남선사-청수사-은각사-동복사-아라시야마 천룡사- 광륭사-동사-삼십삼간당 등 모두가 단풍이 아름다운 사찰을 순례하는 최고의 여행이 될 것입니다.
동참금 | 문의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